

“국힘 국회의원 배출·복합쇼핑몰 등 현안 해결 할 것”

국민의힘 호남 합동연설회

김, 호남 키워드는 ‘진심·진정성’ 안, 라이벌 ‘김기현 때리기’ 계속 천, 명맥 끊긴 ‘호남 큰 정치인’ 황, 지역 국회의원 3명 배출 약속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호남 합동연설회에서 ‘4인 4색’으로 광주·전남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했다. 다만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는 청년 최고위원·최고위원·당 대표 후보의 정견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한 곳에 모여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지지 후보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1000여명의 지지자가 몰려 ‘보수 불모지 호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황교안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 각 한 명씩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을 약속했고, 천하람 후보는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것을 강조하며 호남을 핵심 지역으로 삼아 전국 선거에서 이길 발판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직을 대권 발판으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라이벌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를 비판했다. 김기현 후보는 복합쇼핑몰,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호남 지지를 이끌기 위해 진정성을 강조했다.



황교안(왼쪽부터), 천하람, 안철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들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당 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정견발표를 한 황교안 후보는 지지자들과 자신의 슬로건인 ‘그래, 당원이 주인이야’를 외치면서 지역 내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등 호남의 발전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당 대표일 당시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광주·전남·전북에 국회의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광주 복합쇼핑몰을 만들고, 새만금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며 “고흥 항공우주 산업은 한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을 살리는 것이다. 이제 호남이 국가 미래 비전의 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는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3년 전 순천에 왔던 경험을 토대로 정견발표를 시작했다. 천 후보는 “처음 순천에 왔을 때는 ‘전남의 정치’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더 어렵고 힘들었던 건 선거 후 ‘호남 몫’을 움켜쥐고자 남을 꺾어내리고 권

력자 옆에 붙어 권력 부스러기를 받을 궁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전라도당이라고 하면서 매번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남을 핵심 지역으로 삼아 전국 선거에서 이길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견발표를 한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때리기’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당 대표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기현 후보에게 물었다. 당이 요정한다면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대 승리와 ‘윤심’만 생각하는 후보와 내년 총선 승리를 결정하는 민심을 생각하는 후보의 대결이다”며 “민심을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이다”고 공격했다. 그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의혹’도 지적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정견발표를 한 김기현 후보는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와 경찰을 총출동시켜 1년 반을 뒤졌고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 프레임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는 후보를 용납하면 안 된다”고 안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2년 전 원내대표가 됐을 때 41주년 5·18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면서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받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심과 진정성이다. 일회성 보여주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 국립의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강진·담양·해남·고흥·영암에 체험형 관광 실감콘텐츠 구축

전남도가 지역 문화자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관광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강진·담양·해남·고흥·영암 5개 지역에 29억 원을 들여 체험형 실감콘텐츠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관광·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7개 콘텐츠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구축한다.

지역 문화·관광·역사 등 자원을 관람객이 직접 보고,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실감콘텐츠와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강진에는 다산박물관과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 다산의 정원 미디어아트와 터널형 청자 소재 미디어아트를 개발하고, 담양에는 대나무박물관과 죽녹원에 대나무 관련 실감콘텐츠를 구축한다.

해남에는 증생대 디지털 수족관, 고흥에는 풍광과 명화를 주제로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암에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영상으로 제작한다.

콘텐츠 구축은 전남도와 시·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올해 지방공무원 117명 선발

광주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17명을 선발한다. 채용시험은 2회로 나눠 실시하며, 시기별로 △상반기에 8·9급, 일반행정 등 15개 직렬 108명 △하반기에는 7급, 연구·지도사 등 7개 직렬 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79명 △기술직군 35명 △연구·지도사 3명이다. 직급별로 △7급 4명 △8급 2명 △9급 108명 △연구·지도사 3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는 별도로 구분해 법정 의무 채용비율을 상회하는 장애인 9명

(7.7%), 저소득층 3명(3.1%), 기술계고졸자 2명(40%)을 선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장애인·임산부 응시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 시험실을 배정하고, 확대문제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전국 동시에 시행하며, 올해 8·9급 시험은 6월 10일, 7급 등 시험은 10월28일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각각 8월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모바일 광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김 지사 “농·수협중앙회 이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젊은 세대에 희망 안겨주자”

전남도가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 농·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의원,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더 큰 기관, 더 많은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 시 꼭 지켜져야 할 7대 원칙과 전남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설명했다.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자유토론에서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농협중앙회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외에 대학·기업·연구소 등 패키지 이전을 강조했다. 또 문채주 목포대 교수는 한전 이전과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그중 핵심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다.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남도의회는 물론 시군 의장협의회, 농업인단체연합회, 수협협의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정훈도당위원장이 농·수협중앙회 소재지를 전남도로 명시하는 농·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광주도시공사 ‘윤달 맞아’ 영락공원 개장 유골 화장 확대

광주도시공사는 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3월22일~4월19일)을 맞아 영락공원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영락공원은 윤달을 앞두고 화장일 기준 1개월 전인 오는 22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예약을 받는다. 윤달이 시작하는 3월22일 화장예약은 2월22일 0시에 예약하면 된다. 윤달은 ‘순 없는 달’로 불리며 개장 유골 화장이 집중되는 달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화장을 보류했던 시민들이 많아 이번 기간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달 기간 일반 화장은 1일 35기로 변동이 없으며, 개장 유골 화장은 1일 38기로 확대한다. 특히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해 부부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 부부합장 유골 동시 화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민근 사장은 “올해 윤달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질 없는 화장장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